

청년 · 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건립

남원시,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 선정… 2029년까지 100세대 공급 기반 마련

남원시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사내 중심에 위치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 한고동 일원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2029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전북도가 도내 인구감소 우려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북 개발공사는 2031년까지 총 5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남원시는 공모 초기부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후보지 분석에 집중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지역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과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市の 강한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지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반할주택 조감도

실제로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전국 최초로 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로 시행된다. 이 외에도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기회도 제공된다.

남원시는 이 같은 이점을 토대로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할주택은 남원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남원이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서울대와 함께하는 교원 인생설계 연수 '호응'

퇴직 예정 교원 대상 진행

순창군이 서울대와 함께 선보인 인생설계 연수 프로그램이, 퇴직 예정 교원들의 깊은 공감과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2025년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설계 직무연수'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순창 힐랜드에서 진행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퇴직을 10년 이내에 앞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이 주관하고 순창군이



운영에 협력하고 있다.

연수는 기수별 57명씩 총 228명의 교원이 참여하며,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건강, 자산관리, 법률, 힐링 등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김치현 교수의 허리 통증 관리 특강 △조비룡 교수의 백세 건강 전략 △정진호 교수의 피부 건강 강의 △박상철 교수의 100세 시대 행복한 삶 △나상훈 교수의 심장 건강 지키기 등 건강 관련 주제를 비롯해, △슬기로운 노후 자산관리 △학교 안팎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 등 실생활 밀착형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강찬산 트레이닝, 관광지 탐방, 발효문화 체험, 디톡스 욕목 등의 활동도 연수에 포함되어 있어, 교육과 힐링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기초푸드뱅크-임실창고 1964, 업무협약

사회복지법인삼동회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학성)에서 운영하는 임실군기초푸드뱅크가 임실군 대표카페 임실창고 1964와 기부식품 등의 기부 및 후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래된 마을의 미곡창고를 새롭게 꾸미고 지정환 신부님이 임실에 오신

1964년을 가리는 뜻에서 '임실창고 1964'라 이름을 붙여졌다.

2023년 10월 문을 연 카페 임실창고 1964를 운영 중인 정유진(임실삼삼오 오정춘햇살협동조합) 대표는 "그저 맛있고 유명한 카페를 넘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행보가 머



무는 카페로 나아가려 한다"며 앞으로 더 꾸준한 기부와 후원을 약속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기업 경쟁력 강화 · 고용 개선

임실군,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임실군이 지역 내 주력상품을 강화하고, 기업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관내 지역특화 기업을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달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실군 산업구조는 소규모 기업과 농어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지역특화산업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 버터·치즈 등 유제품, 발효식품, 건설 자재 등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부족, 판로 확보 어려움, 경영 컨설팅 부족 등으로 성장이 제한적이며, 휴업으로 전환되는 등 공장 운영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군은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도비 9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여기에 군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에 총사업비 1억1천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전주지전대학 산학협력단(063-280-5276)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임실=전홍영 기자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은 임실군 소재 지역특화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력상품을 강화하고, 홍보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을 7개소 선발한다.

선발은 신규 고용 창출 가능 여부, 지역특화산업 연계성, 기업의 고용 안정성 여부 등 공정한 선발 면접을 거쳐 진행된다.

선발된 사업장에는 기업의 성장과 시장 확장에 필요한 맞춤형 아이템 발굴(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홍보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8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또한 참여기업에는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관리 및 기업마케팅 교육과 재직자 대상 근로기준법, 회계·세무, 직장인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지역특화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체 홍보 및 교육지원 등을 받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에서도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도모하고, 찾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용 금액 일정 비율 환급

순창군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사용 실적에 따라 다음 달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이며, 고속버스와 고속철도(KTX, SRT)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비율은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성인은 이용 금액의 20%, 청년층(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은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K-패스 제휴 카드사(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중 원하는 곳에서 K-패스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전용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korea-pass.kr)에 접속해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K-패스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통해 군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41, 7442, 7446) 또는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로 문의하면 되며, 공식 누리집(www.korea-pass.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보건소, 국가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남원시보건소는 2025년 세계 예방접종 주간(4.21~4.25)을 맞아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수립과 운영, 홍보 등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어린이 19종, 폐렴구균 23가(60년생 이후), 인플루엔자 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으로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13가(61년생) 예방접종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대상포진 생백신 무료 접종과 사백신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에게는 사백신 무료접종을 백신 구입 단가로 저렴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은 우리 모두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려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중장년층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중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리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년기와 노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12명을 대상으로 '다시왔다 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5월 2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 및 스트레스 감사를 통한 무너 건강 분석과 결과 상담을 비롯해, 정신건강 예방수칙 교육, 다양한 심리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꽃차 소믈리에 과정도 포함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꽃차와 티푸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